

장애인 공무원, 편의시설 만족도 2년새 후퇴

인사관리 전반 인식, 2018년 3.38점→2019년 3.47점

경사로·엘리베이터 등 배치, 긍정적인 응답 감소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은 근로환경 등 인사관리 전반이 2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 배치는 긍정적인 응답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143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들은 2018

년보다 채용, 근로환경, 근무지원사업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2018년 3.38점→2020년 3.47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분야는 3.53점에서 3.57점으로 상승했다. 시험정보에 대한 접근성(2018년 3.34점→2020년 3.37점)과 시험 과정의 편의성(2018년 3.48점→2020년 3.54점), 정당한 수험편의 제공(2018년 3.66점→2020년 3.68점) 등 채용 과정에서의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는 인사처가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수험생들에게 확대 문제지와

휠체어 전용 책상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각종 시험편의 지원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직무배치 분야의 경우 직무 재배치·조정 수용도(2018년 2.88점→2020년 3.02점), 부서·기관의 이동성(2018년 3.29점→2020년 3.38점) 등은 2018년보다 상승했으나, ‘희망 근무지 사전조사 및 반영’(2018년 2.93점→2020년 2.89점)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 분야에서는 개선요구에 대한 각 기관의 적극적 조치 정도를 의미하는 환경개선 요구 수용도는 2018년 3.19점에서 2020년 3.34점으로 개선됐다. 다만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감소(2018년 3.95점→2020년 3.54점)했다.

근무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은 2018

년 3.13점에서 2020년 3.51점으로 개선 폭이 컸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인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2.83점에서 3.43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근무지원사업 예산이 2년 새 5억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늘고, 지원 인원과 지원기기도 각각 54명에서 117명, 41점에서 149점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는 총 1430명이 응답했고 이 중 남성(82.8%), 경증(69.6%), 지적장애인(57.6%) 비율이 높았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이슬 기자



무안군 가족센터, 코로나19

극복 다문화자녀 생활지원

무안군 가족센터(센터장 오매자)는 코로나19로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 7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해 온라인 학습 및 EBS 방송 시청을 안내하였다.

가족센터는 센터 직원을 포함하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방문교육지도사를 연결하여 자기주도 학습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자녀에게 학습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의 생활 지도, 온라인 학습 지도에 나서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 후원물품(고구마, 양파, 돼지고기 등)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를 전하였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문교육 대상 32가정과 국적별 회장단 14명에게 방역마스크 1,000매를 전달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확대

1~4급→모든 장애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이 오는 7월부터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실시에 따른 확대운영이다. 앞으로 장애인은 전국 면허시험장 중 8곳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 16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설치된 면허시험장은 부산 남부, 전남 나주,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전주 등에 있다.

강아라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청각장애인에 촉각 통한 소리 전달 성공

주위 소리·자신 목소리 음높이 분석 촉각 패턴 변환



ETRI 신승용 선임연구원(왼쪽)과 정승은 선임연구원이 촉각 피치 시스템으로 진동을 통해 정확한 음정을 파악하는 훈련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ETRI 신승용 선임연구원(왼쪽)과 정승은 선임연구원이 촉각 피치 시스템으로 진동을 통해 정확한 음정을 파악하는 훈련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주위 소리와 자신의 목소리의 음높이를 분석해 촉각 패턴으로 변환해주는 ‘촉각 피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악이나 소리 등 청각 정보로부터 소리의 주파수 신호를 뽑아내 음을 인식한 뒤 촉각 패턴으로 만들어 착용자의 피부에 전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주변 소리나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음의 높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연구진이 고안한 방법은 주변에서 4옥타브 게이름 ‘도’ 소리가 들리면 사용자가 왼손에 긴 장갑을 통해 감지 첫째 마디에 진동이 느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손의 구조와 인지 용이성을 설계에 반영해 한 손에 3옥타브에 해당하는 36개의 음계를 촉각 패턴으로 표현했다.

손 부위별 진동 위치에 따라 음의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

변 소리와 내 목소리의 높낮이를 촉각으로 익히는 훈련이 1개월 가량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함께 개발된 학습 방법 및 훈련 과정을 거치면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음에 맞춰 낼 수도 있다.

연구진은 강남대와 인공지능 수업을 받은 청각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이들이 약 1개월간 15시간 훈련을 통해 촉각을 이용, 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원하는 음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 3배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촉각으로 훈련한 노래를 정확한 음으로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향후 더욱 쉽게 훈련을 진행하고 편한 착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목/암밴드 등 웨어러블 형태로 장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신형철 ETRI 휴먼증강연구실장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기술이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복지 ICT로 많이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아라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